

데얀 2골 시즌 17호 1위 김신욱에 2골차

사커 토크 다시 불붙은 득점왕 경쟁

2경기 만에 5골...김신욱 부상도 호재
남은 2경기서 막판 뒤집기 가능성 충분
득점선두 탈환 땀 K리그 첫 3연패 위협
"날 믿고 기회 준 팀 동료들에 고맙다"

3년만의 국내 득점왕 탄생이나, 최초의 득점왕 3연패나. 끼친 줄 알았던 득점왕 경쟁이 다시 불붙었다. FC서울 데얀(32)이 득점선두 김신욱(25·울산 현대)을 2골 차로 바짝 추격했다. 데얀은 24일 부산 아이파크와 K리그 클래식(1부 리그) 38라운드에서 페널티킥 포함 2골로 3-2 승을 이끌었다. 시즌 17호 골. 데얀은 20일 전북전 헤트트릭에 이어 2경기에서 5골을 몰아치는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 김신욱과는 2골 차다. 서울과 울산 모두 2경기씩 남겨 놓고 있어 남은 기간 충분히 역전도 가능하다.

얼마 전만 해도 김신욱 득점왕은 때 놓은 상상처럼 보였다. 김신욱은 19골로 2위 제주 페드로(17골), 3위 데얀(12골)과 격차가 컸다. 페드로는 시즌을 마치기도 전에 일본 행이 확정돼 팀을 떠났다. 김신욱은 2010년 유병수(당시 인천)에 이어 3년 만의 국내 공격수 득점왕이 확실해 보였다.

하지만 데얀의 뒷심은 무서웠다. 데얀은 20일 전북과 홈경기에서 헤트트릭을 작성했다. 광고롭게 이 시기 김신욱이 다쳤다. 김신욱은 국가대표에 차출돼 19일 러시아와 평가전에서 발목 부상을 당했고, 23일

수원 원정 출전이 불투명했다. 큰 부상은 아니어서 후반 교체로 그라운드를 밟았지만 득점은 올리지 못했다. 앞으로도 김신욱이 부상 후유증에 시달리고 데얀이 계속 득점포를 가동하면 막판 뒤집기가 연출될 수도 있다. 데얀은 2011년(24골)과 2012년(31골) 연이어 득점왕을 거머쥐며 K리그 최초로 득점왕 2연패를 달성했다. 올 시즌 득점선두를 탈환하면 한국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3연패를 달성한다.

데얀의 가장 큰 도우미는 서울 동료들이다. 서울은 남은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최소 4위를 확보해 내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땀다. 포항과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울산에 비해 승패 부담이 덜 하다. 서울 선수들은 부산전에서 데얀에게 찬스를 만들어 주려 다같이 애썼다. 윤일록이 후반 34분 페널티킥을 얻어내자 전문키커 김진규 대신 데얀이 나섰다. 침착하게 성공시켰다. 데얀은 이런 '몰아주기'에도 후반 7분과 17분, 골과 다름없는 기회를 놓치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평소 그렇듯 시즌이 끝나지 않았다. 아무래도 득점왕 경쟁이 신진감이 있는 듯 했다.

데얀은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도 나에게 불이 와 힘들 때가 있었다"고 너털웃음을 지은 뒤 "나도 완벽한 기회를 놓쳤다. 모든 선수들이 나를 믿고 의지해 줘 고맙다.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좋은 결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 최용수 감독은 "너무 데얀에게 패스를 하다가 결과가 잘못 되면 어쩌나 걱정도 됐다"고 농담한 뒤 "외국인 선수지만 팀 동료들이 모두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다. 아름다운 장면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상임 | 윤태석 기자 sportic@donga.com
트위터@Bergkamp08

FC서울 데얀이 24일 부산 경기에서 PK골로 두 번째 득점에 성공한 뒤 두 주먹을 쥐며 환호하고 있다. 시즌 17호 골을 터뜨리며 득점1위 김신욱을 2골 차로 따라붙었다.

상임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트위터@bluemaarine007



경남, '강등탈출 경쟁' 안정권

제주 원정 1-0 승...12위 강원과 승점차 3
강원-대구-대전 '3파전' 양상으로 좁혀져



빠르면 27일 강등 경쟁의 승자가 최종 판가름 난다. K리그 클래식이 2013시즌 최종전(38라운드)까지 단 2경기만을 남겨뒀다. 울산이 우승의 9부 능선을 넘은 가운데 강등권 팀들의 순위 다툼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경남은 24일 제주원정에서 신인 강종국의 결승골에 힘입어 제주를 1-0으로 꺾었다. 승점35(8승11무18패)로 11위를 굳게 지켰다. 12위 강원과 승점차는 3. 강등싸움에서 한발짝 달아났다. 11위는 잔류, 12위는 K리그 챌린지(2부) 1위를 확정된 상주상무와 홈&어웨이 플레이오프를 거쳐 잔류와 강등을 결정한다. 13~14위는 챌린지로 자동 강등된다.

이로써 강등 경쟁은 강원, 대구, 대전의 3파전으로 좁혀졌다. 강원은 23일 전남원정에서 승점 확보에 실패하면서 13위 대구(승점30)와 14위 대전(승점28)의 추격을 허용했다. 대구는 같은 날 성남과 득점 없이 비기며 승점1을 추가했다. 에이스 황일수와 황순민이 경고누적으로 빠졌지만 수비를 두텁게 하며 무승부를 이끌어냈다. 두 팀이 1경기 차로 좁혀지면서 다음 경기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공교롭게도 27일 강원과 대구가 39라운드에서 맞붙는다. 승 목하는 혈투를 예고하고 있다. 두 팀의 상대전적은 3무승부. 이날 경기만큼은 다르다. 양 팀 모두 반드시 승부를 가리겠다는 각오다. 마지막 대결에서 웃는 팀이 상무와 PO 진출에 한걸음 가까워진다.

대전은 경남과 일전을 갖는다. 반드시 승리해야 기적 같은 잔류 희망을 이어갈 수 있다. 대전은 최근 4연승하며 불꽃같은 투지를 드러냈다. 남은 2경기를 모두 잡고 드라마를 쓰겠다고 버리고 있다. 다만 열흘 만에 치르는 경기 가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두고 볼 일이다. 경남은 이날 비기 기만 해도 잔류를 최종 확정할 수 있다.

박상준 기자 spark47@donga.com 트위터@sanjun47



성남 일화 선수단이 23일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대구FC와 마지막 홈경기를 마친 뒤 팬들에게 큰절하고 있다(위). 성남 스포터가 21일 시 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시민구단지원 조례안에 우려를 표하며 항의 시위를 펼치고 있다.

최용수 감독 "포항전 전력 다할 것"

최소 4위 확정...신예들 기회 주고 싶지만
울산-포항 우승경쟁에 원망 듣지 않겠다
1년 전 포항전 참패 기억...자존심 회복도

"이거 참 어떻게 해야 할지..." 24일 부산과 홈경기 직전 취재를 경기 직전 FC서울 최용수 감독이 고민을 털어놓았다. 전날인 23일 수원이 울산에 패하며 서울은 최소 4위를 확정했다. 4위까지 주어지는 내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땀다. 물론 서울은 전북과 3위 다툼을 계속해야 하지만 일단 남은 경기 승패 부담은 크게 덜었다.

이런 경우 경기를 뛰지 않았던 신예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한 방법. 서울은 27일 포항, 다음 달 1일 전북(이상 원정)이 남았다.

그러나 녹록치 않다. 27일 상대인 포항이 울산과 치열하게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게 걸린다. 물론 지금은 울산이 유리하지만 27일 서울이

포항에 2군을 내려 보냈다가 대패하고 같은 날 울산이 부산에 지기라도 하면 양상은 복잡해진다. 다음 달 1일 울산-포항의 최종전 맞대결에서 우승 팀이 가려질 수 있다. 이 경우 우 본의 아니게 서울은 포항을 도운 셈이 된다.

최 감독은 인터뷰 말미 고민을 깔끔하게 정리했다. 그는 "우리는 포항전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게 스포츠 정신에도 맞다. 그렇게 하면 특정 팀에 원망 듣고 할 일도 없을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은 포항전도 베스트 전력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 감독이 포항전을 버리는 숨겨진 이유도 있다. 1년 전 기억 때문이다. 서울은 작년 11월 21일에 일찌감치 리그 우승을 확정된 뒤 11월29일 포항 원정에 대거 2군을 출전시켰다가 0-5로 대패했다. 결과가 의미 없는 경기였지만 최 감독은 예상 밖 참패에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 이 기회에 작년 아픔도 되갚겠다는 각오다.

상임 | 윤태석 기자

FC서울 최용수 감독



서울 물리나가 부산전에서 김응진과 머리를 부딪치며 아찔한 순간을 맞았다. 엠블런스가 출동한 가운데 양 팀 선수들이 한데 모여 물리나를 지켜보고 있다.

물리나 기절...발 빠른 응급조치 빛났다

부산 김응진과 공중볼 경합 중 충돌

FC서울 물리나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아찔한 장면이 연출됐다.

물리나는 24일 부산과 홈경기에서 전반 2분, 공중볼 경합 도중 부산 김응진과 머리를 부딪친 뒤 쓰러졌다. 의식을 잃고 혀가 말려 들어가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선수와 구단의 무진은 발 빠르게 대처했다. 김진규가 말려 들어가는 물리나의 혀를 붙들었고, 데얀은 위급한 손짓으로 의무진을 불러 들었다. 서울 최용수, 부산 윤성호 감독도 직접 다가갔다. 서울 박성을 트레이너가 김진규가 잡고 있던 물리나의 혀를 다시 붙잡는 순간 의식이 돌아왔다. 쓰러진지 약 4분반의 일이었다. 직접 상황을 살피고 돌아온 김진의 경기감독관은 "구단과 선수들의 침착하고 빠른 대응 덕분에 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안도했다.

정신을 차린 물리나는 경기를 땀했다고 했

지만 최 감독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막았다. 물리나는 곧바로 고요한과 교체됐고, 하프타임 때 이대목동병원에서 컴퓨터단층촬영(CT)을 했다. 다행히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K리그는 비슷한 사태로 큰 아픔을 겪은 적이 있다. 제주 신영록이 2011년 5월 대구와 경기 도중 쓰러져 50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목숨은 건졌지만 거동이 불편해 지금도 재활 중이다. 올 9월 인천-전북전 때도 인천 김남일과 경합하던 전북 박희도가 쓰러져 의식을 잃었지만 원활한 응급처치로 1분 정도 만에 호흡을 되찾고 의식을 회복했다.

신영록과 박희도, 물리나 사례에서 보듯 축구장에서 이런 사고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K리그는 박희도나 물리나 때처럼 앞으로 도 빠르고 원활한 응급조치가 이뤄져야 참사를 막을 수 있다는 교훈을 다시 얻었다.

상임 | 윤태석 기자

성남, 시민구단 창단 '삐걱'

새누리당 의원 반대로 구단지원 조례안 부결
오늘 재상정 부결 땀 드레프트 등 일정에 차질

불투명한 미래에 누구도 쉬이 웃을 수 없었다.

성남 일화는 23일 탄천종합운동장에서 대구FC와 마지막 홈경기를 가졌다. 시즌 최종전을 남겨뒀지만 안방에서 일화 유니폼을 입고 땀 흘리는 날이었다. 통일그룹은 올 시즌을 끝으로 천마축구단에서 손을 뗀다. 대신 성남시민구단이 탄생한다. 2000년 성남을 연고지로 채택한지 14년, 구단운영 25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성남시는 차근차근 터 닦기에 나섰다. 이재명 성남시장 이 10월 초 일화축구단 인수를 발표했고, 1일부터 시민공모주 예비청약이 시작됐다. 10억~30억 규모의 시민공모주 모집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8일 만에 2억원(3200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시의회가 발목을 잡았다.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1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시가 제출한 시민구단 지원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새누리당 의원 4명이 심사 보류를 결정하면서 민주당 의원 4명이 찬성한 조례안을 지지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줄속행진"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공세임에 틀림없다. 이로써 구단 양수·양도 계약을 맺으려는 성남시의 일정은 차질을 빚게 됐다.

아직 희망은 있다. 성남시는 25일 오후 본회의에 앞서 상임위를 연다. 다시 한번 조례안을 상정한다. 반대표를 던진 새누리당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조례안이 계획대로 통과되지 못한다면 다음달 20일 즈음 열린 본회의까지 마냥 손놓고 기다려야 한다. 이럴 경우 드레프트 등을 통한 선수수급 및 일정 등에서 파행이 불가피하다. 정규리그 7차례 우승 및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와 FA컵에서 2차례 우승한 산 역사가 한 줌의 재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박상준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bong82f